

생활과 윤리 선지 정리

by Ode To Sleep

1. 실천 윤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1) 싱어

- 인공 임신 중절이나 안락사와 같은 문제들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언젠가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현재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문제로서 민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숙고하여 의견을 내놓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수특)

2) 밀

-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토론과 경험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사실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다. 잘못된 의견과 이에 근거한 행위는 점차 경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토론에서 행해진 논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판단이 지니고 있는 힘은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옳은 것으로 고칠 수 있다는 인간의 유일한 특성에 달려 있다. (수특)

- 토론 없이 감각적 경험만으로는 진리를 얻기 힘들다.

3) 규범 윤리학

- 이론 규범 윤리학: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 제시 (수특)

4) 메타 윤리학

- 철학이란 세계에 대한 이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관한 진술을 그 대상으로 삼는 학문 (수특)

-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

5) 기술 윤리학

- 개인의 생활과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은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으며, 그 원인과 결과는 정확히 탐구하여 기술할 수 있음 (수완)

-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규범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6) 소크라테스

- 영혼을 돌보는 일과 생필품을 구매하는 일은 질적으로 다르다.

2.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1) 도가

- 성인은 이로움과 혜택을 만대에 두루 베풀지만,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았다. (수특)

- 하늘을 인간의 주관적 의지와 욕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로 보고, 하늘은 만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거나 편애하지 않고 우주 전체의 조화로운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움직일 뿐이라고 주장

- 도에 일치하도록 이기적 욕망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수특)

- 성인은 행함 없이 일하고 말없이 가르침을 행해야 한다. (수완)

- 성인은 사람들의 마음은 비워 주고 욕망은 약하게 해 준다.

2) 아퀴나스

- 자연법은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쳐 준 욕구를 채우며 신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등 인간이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다. (수특)
- 인간은 다른 모든 사물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라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을 지닌다. 또한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이라는 본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3) 벤담

- 공리의 원리는 고통과 쾌락이 우리를 지배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사상 체계의 기초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의 목표는 이성 또는 법률의 손으로 조직적인 행복을 구성하는 것이다. (수특)
- 도덕적 고려 대상을 인간에서 동물에게 확장 가능

4) 매킨타이어

-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우리는 실천에 내재된 선들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선을 성취하는 것이 제지된다. 핵심적인 덕성들이 없다면 우리가 실천에 내재된 선으로 다가가는 것이 봉쇄된다. (수특)
- 우리는 정의, 용기, 정직의 덕들은 내재적 선들과 탁월성에 대한 척도를 갖고 있는 모든 실천의 필연적 구성 요소로서 수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에 내재하는 선들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특)
- 덕의 실천은 스스로에게 최선으로 실현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단순한 예비적 연습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의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다. 덕을 말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선을 적절히 규정할 수 없다. (수완)
- 행위자의 실천 의지를 도덕적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다. 실천 의지가 도덕 법칙의 이행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
- 덕은 사회적 실천 또는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인간의 성품이다.
- 인간은 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타고났지만, 덕 자체를 타고나지는 않았다. 덕은 습득된 탁월성이다.
- 도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기나 감정을 고려한다. 행위자의 동기와 감정이 덕을 갖추고 있을 때, 그 행위가 진정으로 유덕한 사람이 행하는 도덕적인 행위이다.

5) 규칙공리주의

-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산출하는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수완)

6) 유교

- 공자: 이상사회에서는 신분과 성별에 따른 분업이 이뤄진다. (수특)
- 공자: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악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도가 없으면 예악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현명한 임금의 덕으로 정치를 행한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신하는 도로써 임금을 섬긴다.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8' 9)
- 맹자: 하늘을 도덕적 존재, 즉 인간에게 사덕을 부여하는 존재로 보았다.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것은 곧 하늘을 아는 것이라고 보았다. 사람의 마음의 본성과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 맹자: "군자는 동식물을 사랑하지만 인애하지는 않고, 백성들을 인애하지만 친애하지는 않는다. 부모를 친애하고 백성들을 인애하며, 백성들을 인애하고 동식물을 사랑한다" -> 인간과 자연에 대한 분별적 차이
- "성실함은 하늘의 도이고,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
-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배양하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의 경지 지향
- 맹자: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며, 의는 사람의 바른길이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의의 근본이다.

7) 칸트

- 용기, 지성, 판단력과 같은 기질은 도덕적 행위를 위한 충분조건 X -> 선의지 필요
- 우리가 성품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면 악하거나 해로울 수 있다.
- 선한 목적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은 **도덕적 준칙**과 양립할 수 없다.
-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존경심을 포함한 일체의 감정**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 > 존경심: 이성 개념에 의해 스스로 일어난 감정, not from 경향성 -> 도덕적 행위와 연관될 수 있음
- 행복함은 모든 이성적이며 유한한 존재들의 필연적 욕구, 도덕법이 요구하는 최고선의 필수적 구성요소
- >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완성된 도덕성에 상응하는 행복을 얻는 것이 칸트의 '최고선'
- 순수한 실천 이성은 사람이 행복에 대한 모든 욕구를 포기해야 할 것을 의욕하지 않는다.

8) 밀

- 인간 행위의 목적이 행복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동기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9) 공리주의

- 경험적 요소에 근거한 유용성의 원리가 보편적 도덕 원리가 될 수 있다.
- 행위의 혜택과 비용을 계산할 때 **도덕적 직관에 의존**해야 한다. -> 쾌락을 양/질적으로 계산

10) 아리스토텔레스

-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 도덕적 덕은 궁극적으로 실천적 지혜라는 지적인 덕에 의해 완성된다. 도덕적 덕을 획득하기 위한 훈련은 단순히 유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유덕한 행위에 대한 실천적 지혜(지적인 덕)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3. 삶과 죽음의 윤리

1) 싱어

- (...) 호모 사피엔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과학적 사실은 동일한 생명권을 부여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또한 자의식이나 이성을 근거로 태아를 동물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태아의 지적 능력은 소나 돼지보다 낮기 때문이다. (...) 자의식을 갖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왜 자의식을 갖춘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또 아직 자의식을 갖추지 못한 존재의 삶을 마감하도록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수특)

2) 칸트

-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일의 의무는 그의 동물적 자연 본성에서의 자기 보존이다. (...) 그 자신의 인격에서 윤리성의 주체를 파기한 것(자살)은, 윤리성이 목적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성 그 자체를 그 실존의 면에서 말살하는 것과 같다. (수특)
-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일의 의무는 그의 동물적 자연 본성에서의 자기 보존이다.
- 자살은 배우자, 자녀, 동료 시민 또는 신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플라톤

- 사유는 정신이 자기 자신에 돌아갔을 때, 즉 청각이나 시각이나 또 고통이나 쾌락이 정신을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 가장 잘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 될 수 있는 대로 그것과 상관하지 않을 때, 영혼이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전혀 갖지 않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할 때 가장 잘 사유하게 된다. (수특)

4) 하이데거

- (...) 이와 같은 죽음에 불안에 의한 비본래적이고 퇴폐적이고 속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기를 자각하고 본래의 자기로 귀환할 수 있다. (수특)

- 현존재의 죽음은 더 이상 현존재로 존재할 수 없다는 가능성이다.

5) 쇼펜하우어

- 인간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모두 버림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완)

6) 에피쿠로스

-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몸은 감각 능력을 상실한다.

-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원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영혼이 물질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어떤 형이상학적 관념이라는 점을 부정한다. 그는 인간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하므로 살아있을 때 가졌던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본다.

7) 아우구스티누스

- 물질적 궁핍 때문에 하는 자살은 영혼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수치스러움을 피하기 위한 자살은 단지 더 큰 수치를 낳을 뿐이다.

-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난에 대하여 결백함을 드러내기 위해 자살을 하는 것은 죄를 더하는 것일 뿐이다.

8) 아퀴나스

- 자살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치며, 신이 부여한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4. 생명 윤리

1) 불교

- 불교의 역지사지는 모든 생명체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고통에 대하여 어떤 종보다도 섬세하게 반응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거의 같은 정도로 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식물 또한 역지사지의 대상일 수 있다. 그들 또한 성장 욕구를 갖는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특)

2) 벤담

- 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특)

3) 레건

-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를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수특)

4) 칸트

-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수특)

5) 아리스토텔레스

-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자연은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므로 모든 동물과 식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 (수특)

6) 슈바이처

- 윤리란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히 확장된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생명에 대한 외경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에 대한 책임은 우선 자기 안에서 생명의 의지를 체험하고 그 자체로 그것을 존중하고 나서, 이것을 자기 주변의 다른 존재에게도 부여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동등성의 원칙에서 이루어진다. (수완)

7) 요나스

- 인간에게 새로운 행복을 약속하는 생물학적 조작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한다.
- 불행의 예방만이 허용되고 새로운 종류의 행복을 위한 어떤 시도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 자신의 타고난 유전 형질에 대해 무지할 권리의 박탈은 모든 물음 가운데 가장 내밀한 물음,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차단시킨다.

8) 하버마스

- 유전학적 치료에 대해서는 담론을 통한 보편적 합의가 가능하다.
- 부모의 선택에 의한 유전적 간섭은 그것이 자녀의 극단의 그리고 일반적인 악의 제거 차원의 경우에만 자녀의 동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5. 사랑과 성 윤리

1) 프롬

-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이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수특)
- 사랑은 어머니와 태아와 같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다 X (수특)
-> 어머니와 태아: 서로를 수동적인 대상으로 여김 (진정한 사랑 X)
-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합일의 과정이다 X (수특)
-> 지배와 소유 X,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

2) 길리건

- (...) 도덕은 대립되는 요구들을 저울질하는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함의 문제로 규정된다. (수특)

3) 유교

- 부부: 천륜의 관계 X (수특) -> 인륜의 시작 (천륜 = 부자)
- 형제: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경쟁적 관계이면서 서로 친애하는 협동적 관계 (수완)
- 형제: 같은 항렬

4) 밀

- 여성의 남성에 대한 예속은 자연적 본성을 제도화한 관습의 결과이다 X (수완)

-> 사회적 편견, 전통에 의한 교육과 환경의 결과

- 여성이 낳 때부터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야말로 불필요하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남성만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 원리에 따라 배제된다면 그것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 누구도 여성에게 특별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진로와 인간 사회가 진보해 나가는 방향은 불평등한 권리 구조에 대한 거부이다. 아무리 보편적으로 알려진 전통일지라도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성을 다른 성의 지배 아래 두려는 모든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수완)

5) 보부아르

- 여성 억압적 삶의 정황으로부터 여성이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동등성을 위한 투쟁 및 경제적 독립에 있다.

6. 직업과 청렴의 윤리

1) 사회적 자본 by 퍼트남

- 사회 성원들 간의 신뢰, 기업들 간의 신뢰, 사회 제도와 정책 리더들에 대한 신뢰가 정착되어야 그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협력적 행동을 촉진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 집단적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유용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수특)

-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이익인 동시에 공적인 이익이다. (수완)

-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시민의 청렴한 품성이 함양된다. (수완)

-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 사회적 갈등이 사라진다.

2) 플라톤

- 사람은 제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각각의 것이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그리고 더 쉽게 이루어지는 때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자신의 성향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하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한가로이 대할 때이다.

(수특)

3) 기업의 소극적 책임(프리드먼)

-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공익의 실현은 서로 양립될 수 있다. (수완)

- 사회와 대학에 대한 기업의 지원과 자선 활동은 기업의 자금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이다. 자선과 기부는 재산의 궁극적 소유자인 개인들이 직접 해야 한다. (수완)

-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 증진에 힘써야 한다 X -> 주주 only

4) 칼뱅

-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볼 때, 그것이 운명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 신이 불공평하게 배분한 것은 인간의 선의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신은 우리에게 자선과 선행을 명했다. (수완)

- 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부는 부정되어야 한다.

- 물질 사용은 항상 사랑에 근거해야만 신의 뜻에 부합한다.

- 신에 대한 믿음을 지닌 자들 사이에서는 직업 역할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X

-> 직업 역할: 신이 지정해준 것

- 신의 소명에 따르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은 고귀하다.

- 참된 노동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5) 순자

- 예는 백성들이 욕망을 적절히 충족하고 공적 노동에 종사하도록 한다.
- 직분이 올바르게 분별된 나라에서는 차등적 분배가 실현된다.

6) 마르크스

- 기술의 발전을 통해 노동자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에서 해방된다.
- 전반적 생산을 사회가 조절한다면 인간의 자아 실현이 가능해진다 X (-> 자유로운 노동을 통해)
- 인간은 단독자로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7) 공자 & 플라톤

-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고 주어진 역할의 본분을 다해야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8) 정약용

- 청렴한 공직자도 사유 재산을 지닐 수 있다.
- 관리가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능력을 기준으로 사민구직의 직능을 국가가 배정해야 한다.
- > 직업에 대한 신분적 질서에서 벗어나, 직업을 사회 분업에 따라 직능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7. 사회 정의와 윤리

1) 아리스토텔레스

- 일반적 정의는 시민들이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수특)
- 일반적 정의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려는 포괄적인 덕이다.
- 옳은 것을 원하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수특)
- 분배와 교섭에서 정의로움이란 동등함이다.
- 분배적 정의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공공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올바른 중간을 찾는 것이다.
- 교정적 정의는 이득과 손실 사이의 중용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 공동체는 선을 위해 존재하며 규모가 큰 공동체일수록 더 좋고 고귀한 선을 추구한다.
- 공동체의 행복에서 구별되는 개인의 행복이란 성립될 수 없다.

2) 왈처

- 개인들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된 롤스의 단일한 정의의 원칙은 실제 삶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고 비판 (수특)
-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이다. (수특)
- 사회적 가치가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보다 부정의하다.

3) 니부어

- 개인의 도덕적 자각은 사회 집단의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수특)
-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완)
- 개인들의 도덕적 함양이 필요하다. (수완)
- 조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충성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쉽게 달성할 수는 없다. (수완)
- 인간의 본성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 면에서 부족하지 않다. (수완)
- 선의지의 증가를 통해 집단 간의 영구적인 힘의 균등을 실현해야 한다 X
 - > 사회적 강제력을 통해 일시적인 힘의 균등만이 가능
- 강제력이 사회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요인(양심과 선의지)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 집단의 상호 투쟁은 정의 실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 인간 사회의 집단적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된다면 이는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 집단에 속한 개인은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르는 경향이 있다.
- 선의지는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의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 합리적인 사회라면 강제력과 갈등의 제거보다는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강조점을 둘 것이다.
- 사회는 이기심, 반항, 강제력 등과 같이 도덕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4) 칸트 & 벤담 공통

- 형벌의 집행을 통해 사회의 공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수특)

5) 롤스

- 모두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정당하다. (수특)
-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서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수특)
- 부의 지나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유산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상속세, 증여세)을 가해야 한다. (수완)
- 이상 사회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국가 주도의 재분배가 실현된다. (수완)
-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한 사회적 불평등은 부정의가 된다. (수완)
- 정부는 교정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만 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X
 - >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도 가능
-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생각한다.** (천부적 재능 자체 X) (20' 수능)
- **분배적 정의의 핵심 과제는 합의된 정의의 원칙대로 운영되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또한 사회 체제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기획되어야 한다. (18' 수능)
-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소위 각 기간의 마지막에 덜 가진 이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공정한 기회균등을 배경으로 각 기간의 시작점에서 생산적 자산과 인적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그것을 피한다. **그 의도는 단순한 사고나 불운으로 손해를 보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물론 이것도 해야 하지만), 모든 시민이 적당한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평등의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완)
-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에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6) 노직

- 자발적으로 이전된 모든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 권리는 절대적이다 X (수완)
- > 이전의 과정에서 과오, 잘못 등이 있을 수 있음
- 최소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갖고 있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7) 벤담 & 베카리아 공통

-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에 두어야 함 (수완)

8) 베카리아

-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형벌을 통해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강도만을 지녀야 한다. 범죄로 인한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대가로 자유에 대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상실을 선택할 사람은 없다. (수완)
- 사형은 신중하게 그리고 격식을 갖추고 집행되는 까닭에 유해하다. (수완)
- 종신 노역형은 사형만큼 고통스럽고 잔혹하다 X
- 사형은 사람들에게 야만성의 실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해하다.
- 형벌의 목적은 범법자 또는 비범법자의 행동 통제이다. 범법자의 의지를 통제하는 교정과 행위를 통제하는 무력화 역할을 해야 한다.

9) 칸트

- 형벌의 정도는 등가성의 원리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only 칸트) (수완)
- 어떠한 선고를 받더라도, 인간의 **생득적 인격성**은 상실될 수 없다.
- 시민적 인격성이 상실된 자더라도 물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없다.
- 살인자의 공범들도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보복법은 시민들의 **사적 보복 의지**를 공정하게 구현하는 형벌의 원리이다 X

10) 루소

- 법의 목적은 사회 계약자 전원의 최대 행복이다.
- 사형에 처하는 살인범은 **공중의 적**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11) 벤담

- 형벌은 최대한의 효과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관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8. 국가와 시민의 윤리

1)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수특)
- 시민 불복종이 법을 어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주의 깊게 숙고된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행위가 공동체의 정치적 신념에 충분한 도덕적 기초를 갖는 것임을 타인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특)
- 시민 불복종은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수특)
- **자연적 의무와 책무의 원칙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된다.** (...) 가장 중요한 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정의로운 제도가 현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을 경우 우리는 그것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둘째, 그러한 제도가 현존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러한 것이 성립될 수 있을 경우에도 정의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 (수완)
- 자연적 의무와 책무의 원칙들은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채택된다. (수완)
- 자연적 의무는 정의의 원칙들을 만족시키는 체제를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의무로 규정된다. (수완)
-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기대할 만큼 정의로우려 경우 사회 구성원은 그 제도를 따라야 할 자연적 의무를 지닌다. (수완)
- 사적 소유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정부의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수완)
-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국가는 무력을 사용한 혁명의 대상으로 성립 가능하다.
-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

2) 로크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라고 보아야 한다. (수특)
- 일부 자연권은 국가 형성 과정에서 권력에 양도 가능하다. (수특)
-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 인민은 자신들이 선출한 입법부를 **자의적으로 폐지하거나 변경할 권력을 지닌다 X**
- 국가의 구성원은 자연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한을 포기한다.
- 국가는 독점적인 처벌권을 지닌다.
-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

3) 싱어

- 시민 불복종은 결과주의적 접근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수특)
-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일부 법을 바꾸기 위해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려는 시도이다 X
- 시민 불복종은 정의 외에도 성공 가능성, 손익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 특정 법에 대해서 다수가 입장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수의 입장에 대해 저항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힘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X**

4) 맨자

- 정당하게 세습된 권력은 민주적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수특)

5) 루소

- 인간 본성의 본질은 자유의사이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곧 인간으로서 자격과 권리, 심지어 자신에 대한 의무까지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한 포기는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모든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주며, 그것을 통해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결합 형태를 찾아내어야 한다. (수특)
- 사회 계약을 통해 사람들은 도덕적 자유를 얻게 된다.
- 계약의 당사자들은 사회 계약을 통해 전체 공동체에 모든 권리와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한다.

6) 한비자

- 통치자는 백성의 생명과 생업 보장에 힘써야 한다. (수완)
- 통치자는 백성에게 덕을 베풀고 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수완) -> 덕 = 상을 주는 것

7) 홉스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 각자 자연권을 향유한다(온전히 보장은 X). (수완)

8)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가 개인과 가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9. 과학 기술과 윤리

1) 하이데거

-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수특)

2) 요나스

-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전통 윤리는 미래 세대까지 적용할 수 없다.
- 책임 윤리는 목적 그 자체인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강조한다.
- 새로운 윤리학은 정언명령을 지향한다.
- 일차적 책임인 '미래 세대 존재 보장'은 이차적 책임인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에 우선한다.
-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는 바로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윤리가 제시하는 책임의 윤리는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이념과 상관이 없어야만 한다."

10. 정보 사회와 윤리

1) 로크

- 노동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 소유될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노동을 투입한 어떤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 의해 소유되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노예로 여겨질 것이다.

2) 잊힐 권리

- 옹호: 잊힐 권리는 일반인과 중대 범죄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 인터넷 실명제

- 옹호: 익명적 의사소통은 그 자체로 충동적 행위를 유발한다.
- 반대: 익명성은 그 자체로 선을 지닌다.

11. 자연과 윤리

1) 슈바이처

- 인간은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생명을 도와줄 필요성을 존중하고, 살아 있는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 인간은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서 동정을 받는지에 대해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도 묻지 않는다. (수특)

2) 테일러

-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

-> 악행 금지의 의무: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어떤 생명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함

불간섭의 의무: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함

성실의 의무: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야생 동물을 사냥, 낚시하거나 덫을 놓는 등의 기만행위 X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함 (수특)

- 개체들의 군집과 환경이 그물망처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 하나의 종을 위한 선이 다른 종을 위한 선이 아닐 수 있다.
- 생명 공동체의 보존이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개체론)

3) 네스

- 기본 원리 (강령)

1. 지구상의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명의 안녕과 번영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이 가치들은 자연계과 인간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문제와는 독립해 있다.
2.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3. 인간들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다. (수특)

-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생명의 풍부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주인이 아니다.

4) 유교

-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이다. 천지에 가득 찬 기운은 나의 몸이요,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 된다. 사람들과 나는 한배에서 나왔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형제이다. (수특)

5) 레오폴드

- 대지를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수특)

- 개인의 본능은 그에게 그 공동체 내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나 그의 윤리는 그에게 협동도 하라고 촉구한다.

6) 도가

-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 없는 무질서의 체계이다. (수특) -> 무목적의 질서

7) 아리스토텔레스

- 동물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수특)

8) 코헨

- 인간의 동물에 대한 의무는 동물의 권리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다. (수완)

- 동물은 쾌고의 이익 관심을 지니며 인간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수완)

- 인간은 인도적으로 행동할 보편적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은 진흙 덩어리가 아니므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양치기가 자신이 기르는 양들을 학대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동물 쪽에서 권리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은 인간이며, 동물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 (수완)

9) 싱어

- 인간(인격체)의 생명이 동물(비인격체)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 (수완)

-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복잡한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가진 존재의 생명을 이러한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족주의일 수 없다. (수완)

-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이나 연구를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연구나 실험이 부도덕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10) 레건

-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 권리론의 입장에서 동물 실험에 대한 절대적인 폐지론 주장

11) 데카르트

- 인간이 아닌 동물은 인간과 달리 영혼을 지니지 못하고, 오직 육체만 지닌다.

12) 싱어 & 레건

- 고등 사고력을 갖고 있는 존재(인간+고등 포유류)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13) 베이컨

- 자연의 질서를 고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자연에 복종한다고 표현하며, '자연은 오직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즉, 자연에 '복종함'을 통해 얻은 자연에 대한 지식, 힘을 이용해 자연을 이용하는 등 복종시킬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14) 칸트

-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15) 테일러 & 레건

- 도덕적 고려 대상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내재적 가치에 근거한다.

12.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1) 톨스토이

- 도덕적 소재가 없는 예술도 예술로 간주할 수 있다. (수특)

2) 플라톤

- 시가의 가치를 아름다움이 아니라 선함에서 찾아야 한다 X -> 아름다움 = 선함 (수완)

-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는 주관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 예술은 사물의 참된 실재를 모방해야 한다.

3) 순자

- 예의로 분별하는 것이 지나치면 마음이 떠나게 되므로 중용을 지켜 인정을 화합하게 하고 예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예와 악이 할 일이다.

4) 정약용

- 사람이 스스로의 인격을 수양하는 용도로써의 음악을 강조

13.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 윤리

1) 엘리아데

- 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는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수특)

- 성이 현현되는 세계는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다 X (수완) -> 성스러움 그 자체가 초월적 존재

- 자연의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성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된다. (수완)

- 종교적 인간은 모든 자연이 신성성의 능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수완)

- 자연은 성스러움 자체가 아니다. (수완)

2) 볼노브

- 과거 민족의 거주지가 지녔던 성스러움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변함없이 집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집은 인간에게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 된다.

14.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

1) 원효

- 혹자는 말하기를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하며, 혹자는 "나는 그러하나 남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여 드디어 하천과 강을 이룬다. 유를 싫어하고 공을 좋아함은 나무를 버리고 큰 숲에 다다름과 같다. 비유컨대 청과 남이 같은 바탕이고, 얼음과 물이 같은 원천이고, 거울이 만 가지 형태를 다 용납함과 같다. (수특)

- 화쟁 사상은 모든 논쟁에 대해 화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2) 하버마스

- 보편적 규범은 합의 당사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상호 주관적 산물이다. (수완)
- 도덕규범의 도출을 위해 규범 준수로 인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수완)
- 담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이나 요구도 표현할 수 있다.

15. 지구촌 평화의 윤리

1) 칸트

- 확정 조항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체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
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

- 예비 조항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 X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 X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 어떠한 국채도 발행 X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 X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 X (수특)
- 국제법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법 개념은 무의미하며,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나 영원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제 민족 합일 국가'인 국제 국가라는 하나의 세계 공화국이 바람직한 대안도 아니다. 이러한 적극적 대안보다 연맹이라는 소극적 대안이 바람직하다. 전쟁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연맹만이 법을 기피하는 호전적 경향과 흐름을 저지할 수 있다. (수완)
 - 영구 평화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도덕에 충실해야 한다.

2) 싱어

- 국가, 비정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원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수특)

3) 롤스

- 해외 원조는 세계 시민주의 입장에서 개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임을 간과한다. (수특)
- >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의무
- 원조에 의한 부권주의적 간섭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원조를 제공하는 사회는 원조 대상국에 온정적 간섭주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 질서 정연한 만민은 자신에게 지나친 손실의 위험이 없다면 궁핍하고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 할 자연적 의무가 있다.

4) 현실주의 & 이상주의 공통점

- 국제 관계에서 국가처럼 강제력을 독점한 주체가 없다. (수완)

5) 갈통

-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려면 폭력을 줄이는 것보다 폭력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 (수완)
-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모두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형성한다. (수완)

6) 현실주의

- 국제 사회에서 주권 국가보다 상위의 행위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7) 이상주의

- 국제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할 주체가 국가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8) 롤스 & 싱어

- 원조는 자원 분포의 유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X